

## KLPGA 임원(이사) 입후보 출마 포부서

이사직에 입후보한 132번 이정화 인사드립니다.

KLPGA는 큰 발전을 거듭함과 동시에 많은 역사의 순간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. 코로나 팬데믹에도 회원들의 사랑과 관심으로 모든 시합이 잘 마무리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이러한 성장에는 김정태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 및 사무국의 많은 노력으로 이룬 결과라고 생각합니다.

저는 1996년 정회원에 입회하여 대의원, 상벌분과위원, 이사직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. 지금은 두 아들을 키우며 대학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.

제가 배우고 경험한 일들을 바탕으로 협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이사직에 입후보하게 되었습니다.

협회의 규모가 예전보다 많이 커지고 회원들의 관심과 사랑도 많이 커진 것 같습니다. 많은 회원님들께서 협회에 대한 아쉬운 부분, 개선되었으면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.

저는 다른 협회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조직이 될 수 있도록 힘쓰며, 협회의 미흡한 면을 잘 보완해 나가는 일꾼이 되고자 합니다.

앞으로의 협회는 선·후배들의 균형 있는 조화를 바탕으로 서로가 더욱 화합하고 활발하게 소통해야 합니다. 투어 활동하시는 회원들과 은퇴한 회원들 모두가 함께 화합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제가 그 중심에서 선·후배님들의 튼튼한 다리 역할을 하겠습니다.

말이 앞서는 약속보다는 누구보다 먼저 행동하고 뜻깊은 결과로 보여줄 수 있는 이정화가 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

2023년 03월 03일

성 명 : 이정화 이 (원)

사단법인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귀중